

순정이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고린 5, 20b)

사순 제 4주일

제 1독서 : 여호 5, 9a, 10-12

제 2독서 : 2고린 5, 17-21

복음 : 루가 15, 1-3, 11-32

강론

소리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영우 신부

오늘은 사순 제 4주일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겠노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순시기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변했고, 무슨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절반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복음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 비유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 얼마만큼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돌아온 동생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의 처사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큰아들의 태도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을 잘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만의 하느님이어야 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불의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듯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식의 은근한 불만과 불평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나오는 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들이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은 나만 회개하고 나만 용서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보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여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유를 갖지 못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일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가리지 않았다.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성의 상실이요 말 그대로 패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가 자리를 잡고 질서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꿈이요 희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가꾸고 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고 처방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을 과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모든 가치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는 이기주의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바탕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동등하게 서로를 받쳐 주는 것이다.

풍족함의 여유와 부족함의 여유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누구의 몫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52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다.”(창세 38, 1-11)

요셉설화와 거리가 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원래 야곱설화에 속해야 할 독립된 야휘스트 전승이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설화에 끼어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윗왕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야휘스트가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언급되는 기회에 다윗 왕의 원조상인 유다에 관한 전승을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 같다. 다윗 왕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잉태한 쌍둥이 중 제라를 밀치고 나온 동생 베레스의 후손이었다. 유다 지파는 레위와 시므온 지파처럼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부족 연맹에 가담하게 된다. 가장 오래된 전승 중의 하나인 판관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유다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그러나 나중에 합류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낳고 그에게서 남부 유다 왕국의 왕조가 창출되었으며 이 가문에서 구세주가 나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나 구세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다는 팔레스티나의 산악 지대로부터 서쪽의 아들람으로 내려 왔다. 아들람은 헤브론에서 가자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 셋을 얻는다. 그들의 이름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다. 에르의 아내는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성서에서 다말이라는 뜻의 종려나무는 여자의 이름인 동시에 마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하느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한 탓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못된 짓이 무엇이었던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맏아들 에르가 손이 없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레위법에 의해서 그의 바로 밑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 만일 시동생이 이를 거부하면 죽은 형의 아내는 성문 앞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고발하고 장로들은 일차 시동생을 타일러 형수의 권리를 찾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시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들 앞에서 형수가 시동생에게 다가가서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을 해주라고 되어 있다. 그리되면 이 시동생은 그 후로 이스라엘 가문에서 ‘신 벗긴 집안’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갖게 된다.

시동생 오난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형수 다말을 맞아들인다. 그러나 부부행위를 하던 도중 정액을 바닥에 흘려 죽은 형에게 후손을 남겨 주지 않으려 한다. 이 일이 하느님의 눈에 거슬려 그도 하느님께 죽임을 당한다. 유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우고 대바로 가는 길가 예나임성 문에 나가 있는 다말의 모습

는 셋째 아들 셀라도 이런 식으로 요절할까봐 며느리 다말을 쫓아 내리고 결심한다. 유다는 남은 아들 셀라가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다말이 변심하여 그녀의 동족에게 시집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혼례관습의 중요한 일면을 배웠다. 그들의 혼례법과 부부윤리나 성윤리를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 성서에 기록된 모든 규정을 우리 시대에 글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우리는 그들의 법과 규정이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법 정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에 나오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음 동생이 받아들이는 풍습은 우리 눈에 부도덕한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문의 생명과 이름을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의 하나였던 고대인들에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은 당연했다.

하느님은 다양한 민족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생활풍습과 지혜의 발달 과정에 맞추어 각기 다른 규정들을 제시해 준다. 이 규정들 뒤에는 자연법과 인간애와 같은 보편적 원리들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규범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규범들 뒤에 숨어 있는 법정신이다. 이 법정신 안에는 하느님의 자상한 지도와 보살핌에 힘입어 끊임없이 성숙해 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양심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개업
세종주유소

박 숙 희(엘리사벳)
이리←→금마간 도로
☎ (0653)831-2228

성운예식장

· 한 홀에 하루 2쌍만을 탄생시키는
여유로운 예식 · 예식과 피로연이 동
일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곳
· 편리한 대형 주차시설
임 정 옥(사비나)
어은터널 앞
☎ 224-8048

천하오토바이

전차중 · 판매 · 수리 · 교환
남 상 권(프란치스코)
성 문 희(사비나)
KBS방송국 고가도로 북개천 사거리
☎ (0652)72-3847

LG(금성)에어콘 총판

· 6개월~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에어컨, 환풍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잡간

2. 성 요셉과 가정

오늘의 우리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까? 말은 앞서고 행동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부활은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는 꺼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늘어나는 이혼율, 매일 거듭되는 수천 건의 낙태 등, 이기적이고 물질 위주의 삶의 태도가 어느덧 몸에 배인 듯하다.

여러 교황님들과 성인, 성녀들은 왜 신앙인들에게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였을까? 이는 성 요셉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 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깊은 침묵, 성실한 삶, 의로움, 하느님의 뜻에 민감함 등이 성인에게서 돋보인다. 성인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 하겠다.

오늘의 아버지들에게 자주 성 요셉을 바라보도록 권하고 싶다. 가정 기도 주판, 가정에서의 책임 이행, 생명권 수호, 부부 신의 준수, 가정 안에서의 규범과 일치 도모 등 이런 것들이 오늘의 아버지들이 성 요셉의 모범을 본받는 길이 아닐까? 또한 성 요셉은 아내들에게는 사랑, 마음의 일치, 충실의 모범이며, 미혼자, 독신자, 수도자, 성직자에게는 정결의 이상이며 보호자이다.

신앙인답다는 것, 부모답다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가족이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 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가정의 보호자, 전교회의 보호자로 세워 주신 성 요셉께 자주 마음을 향함은 참으로 현명한 태도이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요심이 (1126) 김병오



교구 소식

축! 부제서품

일 시 : 4월1일(토) 오전10시30분
장 소 :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예수회 성당
주 레 : Christian Werner 주교
서품자 : 김 혁 태(베드로, 서울 원당 본당)
 김 훈(안토니오, 전주 화산동 본당)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1. 교구장 아시아성서사도직 담당 주교회의 참석 : 3월 27일~4월2일 필리핀 마닐라
- 2. 천호 피정 안내 : 3월28일(화) 주제-고통에서 영광으로, 강사-강덕행 신부
4월1일~2일 주제-마태오 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수난, 강사-유광수 신부, 문의 73-6600
- 3. 용머리 성당 새성전 기공식 : 3월26일(일) 오전10시 주례-이병호 주교
- 4. 새사제 연수 : 3월30일(목) 오전10시 교구청
- 5. 레지오 마리아 단원 교육 : 3월27일(월) 오후7시 둔율동 성당
강사-김봉희 신부, 고흥석
- 6. 웨폴라레 모임 : 4월2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 7. 성모 기사회 : 4월1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8.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3월31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김영태 신부
- 9. 고창 성당 수녀원 전화번호 안내 : 64-6585

천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5월5일(금) ■ 장소 : 전주해성중·고등학교

-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이 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한)
양 진 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예수회 성소모임
· 때 : 4월부터 매월 1,3째 토요일 오후 6시 · 곳 : 서강대학교내 예수회 지구본부(소명의 집)
· 문의 : 직통(02)719-1803 (낮)02-7058-662(류혜옥 신부) 02-7058-161, 164, 575(박상훈 수사) (밤)02-691-8885(정경엽 수사)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แกน,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 태 우(알퐁스)
☎ 88-7717~8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최첨단 부엌가구
NENX전북종합전시판매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생수 공급합니다.
할 티 생수
(전주, 이리 배달가능함)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 86-9993(주) 221-8504(야)
호출 015-680-6769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사순 제4주일: 돼지저금통 및 성미주머니 잘 관리하시는지요!
- 12월 영세자 첫 고백: 오늘 후 3시
 - 성당 들숨소: 29일 어머니미사 * 청소도구 저참바람
 - 여성연합회 주회 피정: 30일 전 9시30분, 회비-2,000원
 - 비품구입 특별헌금 신입액: 이정에(가타리나), 신경철(요셉), 정선례(루시아)-각 15만원, 최광석(베드로), 송명준(도마), 동미숙(수산나), 육완태(토마스), 조준호(프란치스코), 소용기(그레고리오), 김철문(그레고리오)-각 10만원, 송명길(루가)-40만원, 임영빈(마리아), 김계수(막시모), 신상교(요왕)-각 20만원, 유복자(태클라)-5만원, 노송남(안드레아)-50만원, 박길량(라이몬도)-20만원, 최효열(그레고리오)-3만원, * 소개: 293만원 * 누계: 1050만원
- 봉헌액: 최광석(베드로), 박동길(베드로), 이정순(미카엘라)-각 5만원, 박종용(레미지오)-20만원, 중노17만 최복례(루시아), 백옥님(안나), 조성용(안드레아)-각 2만원, 문병희(모니카), 임옥순(루시아), 최효열(그레고리오), 이점이(유리안나)-각 3만원, 정영덕(미사엘), 권기성(스테파노), 박길강(라이몬도)-각 10만원, 김주찬(시몬)-7만원, 노관석(알로이시오)-30만원, 정선례(루시아)-4만원, * 소개: 126만원 * 누계: 415만원
5. 축! 혼인: 28일 12시, 신랑-한오현(라파엘) 군 신부-소은영(루시아) 양
6. 모임: ①푸리아(오늘) ②울프레아(2일 장미미사 후)
7. 금주 청소: 중노2,3만, 처주 청소: 중노4,5만
- 지난주 봉헌금: 1,010,370원 □ 교무금: 1,437,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송년홍
사목회장 황길평

1. 십자가의 길, 사순절 신앙감화: 금요일 오후 7시
 2. 사순절 성서 묵상을 위한 문제지: 마태오 복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고 묵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작성하신 문제지는 성지주일(4월9일)까지 내주시요.
 3. 복자성당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황길평 프란치스코 회장님, 자문위원-이갑진, 김성원, 이상인, 전종인, 신일균, 조성호 회장님, 편찬위원-이경호, 오희용, 정승관, 오교성, 안철조, 형인순.
 4. 부활 판공성사: 28일(화)-다가동, 고사동, 29일(수)-태평동, 기타동, 30일(목)-전북동, 31일(금)-중앙동, 완산동, 4월1일(토)-학생, 직장인. * 평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토 오후 3-5시, 7-9시
 5. 매일 십자가의 길 주판자: 28일(화)-최복주 쟈마, 29일(수)-조정숙 마리아, 30일(목)-황안희 베로니카, 31일(금)-정승관 마칸
 6. 모임 안내: ①M.E 가족모임-31일 오후 7시 ②대건회, 성우회-4월2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4월2일 저녁미사 후
- 성당 청소: 4월1일(토) 구세주의 모친Pr, 일치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육경수 가족
처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이상은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40,700원 □ 교무금: 846,500원
□ 감사헌금: 124,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1. 모임: ①성모회, 자모회, 성가대-공식미사 후 ②사목회-1일(토) 저녁미사 후 ③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2. 요셉회 꽃동네 방문: 4월4일(화)
 3. 사순절 산행: 4월5일(수) 영암 뒤편산
 4. 구역 판공성사 및 미사: 28일(화)-어두, 29일(수)-색장 30일(목)-신흥, 백암, 31일(금)-내정
 5. 부활 성가연습: 평일 저녁미사 후
 6. 다음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 축! 혼인: 신랑-조덕형(요사팻) 신부-강순자(마리안나) 26일(오늘) 12시30분
 8. 금주 청소: 황금의 궁전Pr.
 9. 처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10.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박귀철 ②김금자 봉헌-황대호씨 부부
처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최경범씨 부부
- * 사순절 신앙생활 실천
1. 기도생활-일상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2. 전례생활-성체조배, 성시간 및 강복, 매일미사 참례
 3. 회개와 보속-화해성사(고백) 1일1선(자선과 사랑 및 선행실천)
 4. 크기와 재계-단식(성금요일) 금주(사순절 매 금요일)
 5. 성서 및 신심서적 읽기-요한복음 및 교회서적 1권 이상
- 지난주 봉헌금: 354,500원 □ 교무금: 15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1. 반장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2. 부활 판공성사 안내: * 평일미사 30분 전후 * 4월6일-오후 8시, 김병엽, 김경민 신부님 초청 * 4월8일-오후 3시, 조·중·고학생, 박기준 신부님 초청
 3. 반미사 안내: 21,22,23,24만-3월29일(수) 오후 2:30분 이양옥(테보라) ☎83-0390 * 우정APT, 청산APT, 25만-3월30일(목) 오후 8:00 이덕자(로사) 청산A 가동901호 ☎82-0608 * 송원APT-3월31일(금) 오후 2:30분 202동108호 서철례(글라라) ☎83-8245
 4. 십자가의 길: 금요일 저녁미사 후, 장소-치명자산
 5. 의자 섬금 내신 분: 김병용(프란치스코) 500,000원, 이주철(야고베) 250,000원, 김강원(아오스딩) 300,000원, 육사순(모니카) 200,000원, 심홍순 300,000원, 이육자(모니카) 외 17명 990,000원 * 신입하신 분-박창준(루가) 300,000 * 계: 2,540,000원 * 누계: 9,925,000원
- 지난주 봉헌금: 1,082,050원 □ 교무금: 1,96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동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영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사순 제4주일
치명자산 산상미사-오전 5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1. 금주: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교리교사회 일일찾집-전 5시30분, 9시, 10시30분 미사 ③검진교리-공식미사 후 ④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⑤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부활 판공성사: 평일 저녁미사 후(성당 간백소)
 3. 성가정회: 4월 1일(토) 오전 11시
 4. 처주 ①성소후원회비 납부주일 ②돈보스포회 1일 피정-수류성당 ③제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 후 6시 ⑤울프레아-후 8시
 5. 4월부터 오전 9시미사-중·고학생미사 오후 5시미사-일반미사로 변경됩니다.
 6. 울프레아 임원 개편
간사: 조풍기(프란치스코) 부간사: 방승룡(마티아)
총무: 최경원(젤마) 회계: 차분순(테레사)
- 지난주 봉헌금: 2,285,4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상근

- ◎ 오늘 강론: 임병구(베드로) 부회장
- ◎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리라(루가 15. 18)
1. 아이에스 행사: 장소-치명자산, 오늘 후 2시, 전동성당 집결
 2. 공소 불 판공성사: 27일 전 10:30 양생, 우류터 30일 전 10시 마을리 후 3시 평촌, 광곡
 3. 초중고 불 판공성사: 4월1일~2일 매 미사 저누
 4. 건축위원 및 사목회 임원 연석회의: 27일 저녁 8시
 5. 예비자 모집: 4월2일까지 수녀님께 접수 1인1도 인도
 6. 유아세례: 4월1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람.
 7. 부활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토요일 오전 10시, 새 단원을 환영합니다.
 8. 반미사: 저녁 8시, 28일 저녁 6-2, 29일 저녁 6-7, 31일 저녁 5-4. 이거자와 냉담자 구분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9. 병자 봉성체: 31일 전 9시(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10. 자선의 날: 29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정성껏 봉헌하되다.
 11. M.E 가족 나눔 모임: 28일 후 8시 전일자 가족 환영
 12. 성회 기도회: 28일 저녁미사 후, 한번호 참여해 봅시다.
 13. 회의: ①울프레아, 봉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자모회-29일 어머니미사 후 ③푸리아-4월2일 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1,392,050원 □ 교무금: 1,907,000원